4차 산업혁명 시대 및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 모색

A Study on Ident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o Cop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ecline in School Age Population

장 로 사 (Rosa Chang)*
노 영 희 (Younghee Noh)**

목 차

1. 서 론
2. 선행연구
3. 연구설계
4.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현 단계 진단
5.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 모색
6.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대학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및 대학 입학자원의 급감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현황을 진단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문헌정보학과의 정체성 및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총36개교(2년제 4곳, 4년제 32곳)이며, 학부과정이 폐과된 대학은 총8개교(2년제 5곳, 4년제 3곳)이고, (교육)대학원이 폐과된 곳은 총10개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3년과 대비하여 2019년에 입학 정원수는 38.5%가 감소하였으며, 전임교원수도 13.4%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문헌정보학과의 정체성 및 미래 발전 방향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첫째, 학문 정체성 차원에서 융합교육 필요, 둘째, 법・국가차원에서 문헌정보학과 진흥 및 사서 취업 안정성 보장, 셋째, 협회차원에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 넷째, 대학차원에서 문헌정보학과 지원 및 홍보 확대, 다섯째, 학과차원에서 학생중심 교육 강화 및 취업률 향상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recognizes the need for Korean university society to have to prepare for the coming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for rapid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presents a diagno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department of domestic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o respond to such issues, it explores the identity of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there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 as of February 2020 that 36 universities offer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hile 18 universities abolished the department. Further, compared to 2013, 2019 saw the number of the students enrolled and full-time faculty decline by 38.5% and 13.4%, respectively. Thus, the identity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ere examined by dividing the issue into 5 parts. Five proposals thus were presented: First, convergence education is required at the level of academic identity. Second, at the level of law and state,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t should be guaranteed that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hould be promoted and that the employment should be stabilized. Third, at the level of association, the social image of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hould be enhanced. Fourth, at the level of universities, the support for and promotion of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hould be boosted. Fifth, at the level of the department, student-oriented education should be bolstered and the employment rate should be enhanced.

키워드: 4차 산업혁명 시대, 학령인구 감소, 문헌정보학, 정체성, 발전 방향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School Age Population Declin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dentity, Development Direction

---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rschang120@gmail.com / ISNI 0000 0004 7707 1229)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0년 4월 11일 최초심사일자: 2020년 5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5월 1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127-154, 2020.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2.127

1. 서 론

과연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시대의 도래 및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해 현재 국내 문헌정보학과는 어느 정도만큼 그 위기에 직면했으며, 앞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 의문점으로부터 시작하여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한국 대학사회에서 향후 문헌정보학과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제안함으로써 전국의 문헌정보학과들이 학과의 정체성 및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초석이 되고자 하였다.

대학입학가능자원을 전망함에 있어 4년 뒤인 2024년(37만3,470명)에는 2019년(52만6,267명) 대비 15만 2천명이 줄어듬으로써 그 감소의 폭이 확연히 커지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 확보 전쟁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연합뉴스 2019.08.11). 만약 현 대학 정원(49만7,000명)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2024년에는 정원 대비 입학생이 12만 명 이상 부족하게 됨으로써 전국 351개 대학 중 87개(24.8%)는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한국경제 2020.01.20).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가상현실, 머신러닝,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다양한 분야들 간의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범지구적으로 경제사회구조의 대변혁 및 일과 삶의 총체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김태성 2017). 이로써 최근 한국의 대학사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으며, 문헌정보학계 안에서 역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국내 문헌정보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미래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및 학령인구의 절벽으로 인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한국의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및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의 현황(존폐 현황, 학교별 입학모집 경향, 입학 정원수, 전임교원수, 학과명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현 단계를 진단하고, 현황분석 및 관련 선행연구들을 개관함으로써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나아가야 할 학과의 정체성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기여도 측면에서 전국의 문헌정보학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대학 입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미래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여도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문헌정보학과의 폐과를 막음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도서관을 유지・활성화시켜 한국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본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한국의 문헌정보학계 안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학과의 폐과가 미래에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고대한다.

2. 선행연구

문헌연구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대학교육의 대응방안 관련 연구, 학령인구 감

소 및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대비전략 관련 연구, 그리고 시대변화에 따른 학과의 정체성 및 발전 방향 관련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관련 선행연구를 개관하였다. 즉, 국내 문헌정보학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문헌정보학과 뿐만 아니라 타 학과에서 수행된 국내 사례 및 연구를 조사하였다.

2.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대학교육의 대응방안 관련 연구

김태성(2017)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게 될 미래 대학을 조동성이 지칭한 '대학 4.0'을 언급하며 대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크게 주체, 환경, 자원 및 이들 간의 메커니즘의 4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 공동체는 능동적 학습자인 학생을 조력하는 멘토이자 코치로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대학을 둘러싼 환경도 학생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요구되는 전공과 교육 서비스를 신속하게 발굴 및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교육에 있어 자원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가치 판단력, 창의력, 인간다움(감성),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넷째, 대학교육의 메커니즘은 상호작용적 맞춤형 교수학습의 메커니즘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 중심의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과는 별도로 인문학과 교육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 연구로서 임경순(2018)의 연구가 있다. 연구자는 특히 미래사회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 불평등, 실업 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과 생각 및 느낌을 알고 느끼게 하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감교육을 강조하였다.

2.2 학령인구의 급감 및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대비전략 관련 연구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 및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중소규모 도시에 소재한 전문대학이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연구로서 박정민, 조현철(2003)은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처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대학으로서 향후 유망직종인 BT(Bio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을 접목한 학과군을 특화시켜 경쟁력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교육환경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하여 교육대상과 교육운영 및 교육기반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다른 대학과는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자체적인 대외적 고유 브랜드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학 입학생 수의 급감 및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특히 지방사립대학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연구로서 고영구, 조택희(2018)는 지역의 관점에서 대학정책을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지원재정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해야하며, 대학입학 정원의 감축을 수도권 대학에서 먼저 감

축한 후 규모별로 전국 모든 대학이 고통을 분담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거점국립대학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으로까지 네트워크를 확산시켜 지방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함 등을 강조하였다.

이외에 학령인구의 감소 및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 이미지 형성 및 홍보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 연구로서 구혜경, 전달영, 공면규(2018)는 국립 C대학의 학생들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대학의 교육환경은 대학의 기능적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학시설과 복지수준은 대학의 사회적 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대학의 이미지는 고등학생들의 대학지원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3 시대변화에 따른 학과의 정체성 및 발전 방향 관련 연구

2.3.1 문헌정보학과의 정체성 및 발전 방향 관련 연구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관해 고찰한 연구로서 곽동철(2011)은 앞으로 문헌정보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한국도서관협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협회의 임무로서 첫째,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 현장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한국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을 정립해야하며, 전문직 사서 양성을 위한 표준교과과정을 확립해야하고, 사서양성기관의 정비 및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 문헌정보학 강령의 비평적 담론분석을 통해 문헌정보학 정체성을 탐구한 연구로서 박옥남(2013)의 연구가 있다. 연구결과, 미국 문헌정보학 강령에는 문헌정보학과의 핵심 사명은 인간의 삶, 사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헌정보학과의 주된 가치는 정보, 기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사람과 기술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종이 바로 정보전문직(사서)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등학생 748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로서 노영희(2015)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사서 및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 이하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헌정보학과의 진로에 대한 인지도는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선호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6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문헌정보학의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파악하여 향후 필수 학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해법을 탐구한 연구로서 이제환(2018)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학문의 정체성 확립 측면에서 한국연구재단의 학문분류체계에서 분류하고 있는 복합학이 아닌 사회과학으로서 문헌정보학이 분류될 수 있도록 학계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둘째, 연구의 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전임 교수진의 역구역량을 배가시켜야 하며, 현장 인력의 연구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학계의 대내외적 연구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교육의 실효성 강화 측면에서 학과 구조조정의 폐해를 막으려면 취업률 향상에 주력을 다해야

하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표준교과과정의 개발과 실행임을 강조하였다.

2.3.2 타 학과의 정체성 및 발전 방향 관련 연구

체육계열학과를 중심으로 이주욱, 한동수, 윤대현(2016)은 대학구조조정의 문제는 이미 많은 대학들에게 위기로 다가왔으며, 체육계열 학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였다. 체육계열학과의 미래 지향성 및 실천적 과제로 첫째,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둘째, 각 지역과 대학의 상황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 셋째, 노동시장 여건 전망과 연계된 체육계열학과의 개혁 실천, 넷째, 체육계열학과의 연합체계 구축을 들었다.

또한 경호학과를 중심으로 권혁빈, 박준석(2017)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및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경호학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무엇보다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맞춤형 경호학 관련 인재양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변화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경호관련, 경찰관련, 산업보안관련, 군사관련 학과 등 유사 학과 간의 통・폐합과 시대적 요청에 따른 변화를 미래 예측하여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경호학과 4년제와 전문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산학관의 상호협력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보건계열학과에 초점을 맞춰 박철인 외(2018)는 교수와 산업체 종사자 636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문대학 보건계열학과의 정책변화와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3년제 보건계열학과의 4년제 전환을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본 연구자는 보건계열학과의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현 3년제에서 4년제로 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함으로써 한국 대학사회는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 및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대학차원 및 학과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대비전략을 현 시점에서 반드시 세워야 하며, 문헌정보학과 역시 이미 불어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과 및 타 학과에서 수행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및 학령인구의 급감과 관련된 연구들을 중점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나, 앞으로 국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을 개관함으로써 향후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발전 방향을 제안한 미래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연구설계

3.1 연구질문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지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RQ 1: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 및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문헌정보학과의 현 존폐 현황, 학교별 입학모집 경향 및 입학 정원수, 교원수는 어떻게 되는가?

- RQ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미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문헌정보학의 학과명의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 RQ 3: 문헌정보학과 이외의 타 학과에서 학령인구의 급감 및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가?
- RQ 4: 대학 입학생 수의 감소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문헌정보학과의 정체성 및 발전 방향으로 어떤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가?

3.2 연구방법

본 연구방법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는 문헌연구 단계로서 선행연구를 개관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문헌정보학과의 정체성 및 미래 발전 방향에 적용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3파트로 나누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대학교육의 대응방안 관련 연구, 학령인구의 급감 및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대비전략 관련 연구, 시대 변화에 따른 문헌정보학과 및 타 학과의 정체성 및 발전 방향을 조망한 연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는 현황분석 단계로서 문헌정보학과의 존폐현황 및 학교별 입학모집 경향 및 입학 정원수, 전임교원수, 학과명을 분석함으로써 문헌정보학과의 현 단계를 진단하였으며,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3단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대학 입학생 수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문헌정보학의 정체성 및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로서 5가지로 구분하여 학문 정체성 차원, 법·국가 차원, 협회차원, 대학차원, 학과차원에서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표 1〉 참조).

〈표 1〉 연구체계도

연구방법	연구내용
문헌연구	[선행연구 개관]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대학교육의 대응방안 관련 연구조사 • 학령인구의 감소 및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대비전략 관련 연구조사 • 시대 변화에 따른 문헌정보학과 및 타학과의 정체성 및 발전 방향 관련 연구조사 • 선행연구 관련 시사점 도출
↓	↓
현황 분석	[현황 조사 및 분석] • 문헌정보학과의 존폐 현황 및 학교별 입학모집 경향, 입학 정원수, 전임교원수, 학과명 분석 • 현황분석 관련 시사점 도출
↓	↓
발전 방향 모색	[정체성 및 발전 방향 제안] •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정체성 및 미래 발전 방향 조망 • 학문 정체성 차원, 법·국가차원, 협회차원, 대학차원, 학과차원에서의 발전 방향 제안

4.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현 단계 진단

4.1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현황 분석

문헌정보학과의 현황 분석을 설치현황, 폐과 현황, 입학모집 경향 및 입학 정원수 현황, 전임 교원수 현황의 4가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1 설치현황

각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와 곽동철(2011)의 연구 및 대입정보포털사이트인 '어디가', 『2017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으로서 4가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2020년 2월 기준 한국에서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대학(2년제, 4년제, 대학원 포함) 현황을 파악하였다. 누락된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업데이트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4가지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창설연도는 『2017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기재된 전국 문헌정보학과 설치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대입정보포털사이트인 '어디가'[1]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과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여기서 문헌정보학과를 검색한 결과, 총29개의 2・4년제 대학들이 검색되었다.

또한 '어디가'에서 검색되지 않은 학교로서 곽동철(2011)의 연구 및 『2017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찾은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된 8곳의 대학(대구카톨릭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부대학교, 청주대학교, 한성대학교)을 포함하였다. 1학년 입학생 모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대입정보포털사이트인 '어디가'에서 문헌정보학과 키워드를 넣었을 때 검색되지 않는 대학 8곳은 검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정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여 2020년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학부과정 안에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대학 현황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36개교로서 세부적으로 4년제가 32개교(88.9%)이며, 2년제가 4개교(11.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 참조).

국내 문헌정보학과 개설현황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57년 연세대를 시초로 하여 1950년대 5.6%로서 2개교(4년제), 1960년대 5.6%로서 2개교(4년제), 1970년대 22.2%로서 8개교(4년제 6개교, 2년제 2개교), 1980년대 52.8%로서 19개교(4년제 18개교, 2년제 1개교), 1990년대 8.3%로서 3개교(4년제 2개교, 2년제 1개교), 2000년대 2.8%로서 1개교(4년제)에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국내에 가장 많이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시기는 1980년대(52.8%, 19개교)이며, 다음으로 1970년대(22.2%, 8개교), 1990년대(8.3%, 3개교), 1950년대・1960년대(5.6%, 2개교)의 순으로 한국에 문헌정보학과가 많이 개설되었음을

1)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산재해 있는 대입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개설한 인터넷 무료 대입정보포털사이트이다. 진로 중심의 진학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수험생이면 누구든지 관심 있는 미래 직업과 관련된 대입정보를 찾아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2016년에 58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하였으며, 2018년 3월 기준으로 회원 가입자 수가 50만 명을 넘었다. 〈http://www.adiga.kr〉

〈표 2〉 문헌정보학과 설치현황

학부	지역	대학교명	창설 연도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	박사	
4년제	서울특별시	덕성여자대학교	1980			
		동덕여자대학교	1982	1996	1996	
		명지대학교	1980	1989	2008	1994
		상명대학교	1980	1980	1993	1994
		서울여자대학교	1980	1989		
		성균관대학교	1964	1971	1974	1999(설치) 2012(폐지)
		숙명여자대학교	1976	1983	2006	1982(설치) 1999(폐지)
		연세대학교	1957	1957	1980	1979(폐지) 2003(재설치)
		이화여자대학교	1959	1959	1987	1999(설치) 2000(폐지)
		중앙대학교	1963	1972	1983	1997
		한성대학교	1981	1998	2006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1980	1992	1998	
		광주대학교	1981	2007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1974	1978	1999	
		계명대학교	1980	1989	2000	1998(설치) 2016(폐지)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	1979	1991	2002	
		한남대학교	1980	1997		
	부산광역시	경성대학교	1981	2006	2013	
		동의대학교	1982	2009	2011	2014(설치) 2018(폐지)
		부산대학교	1984	1989	1993	2000
		신라대학교	1979			1998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	2010	2013		
	경기도 수원	경기대학교	1983	1999	2001	1997
	경기도 포천	대진대학교	1991	2001		1997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가톨릭대학교	1976	1997		2003(설치) 2010(폐지)
		대구대학교	1981	1997	2010	2001(설치) 2011(폐지)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대학교	1980	1999	2003	1999
		전주대학교	1983	1994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	1983		2016	1987
	충청남도 금산시	중부대학교	1994	2001		2003(설치) 2007(폐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대학교	1979	1984	2012	1994(설치) 2014(폐지)
	충청북도 충주시	건국대학교	1984	2011	2013	
소계		32				
2년제	서울특별시	숭의여자대학교	1972			
	부산광역시	부산여자대학교	1970			
	경기도 안양시	대림대학교	1994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문성대학교	1980			
소계		4				
총계		36				

파악할 수 있다. 2000년대에 개설된 것으로 파악된 인천대의 경우, 인천전문대학이 2010년 인천대로 통합되면서 발생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별로 파악하면, 서울특별시에 33.3%로서 12개교(4년제 11개교, 2년제 1개교)에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광역시에 13.9%로서 5개교(4년제 4개교, 2년제 1개교)에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경기도에 8.3%로서 3개교(4년제 2개교, 2년제 1개교)에 문헌정보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경산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5개의 지역에 각각 5.6%로서 2개교(4년제)에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상남도 창원시(2년제), 인천광역시(4년제), 충청남도 공주시(4년제), 금산시(4년제), 충청북도 청주시(4년제), 충주시(4년제)에 각각 2.8%로서 1개교에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2년제보다는 4년제에, 지역적으로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에 문헌정보학과가 많이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2년제를 제외한 32개교 4년제 대학들의 (교육)대학원에 문헌정보학 및 사서교육전공이 설치된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29개교이며,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곳은 22개교이고, 석・박사과정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21개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교육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0개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부과정은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을 개설하고 있지 않은 대학은 1개교(덕성여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4.1.2 폐과현황

(1) 분석결과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폐과된 문헌정보학과의 현황(2년제, 4년제, 대학원 포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와 곽동철(2011)의 연구 및 『2017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으로서 3가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폐과연도는 『2017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기재된 전국 문헌정보학과 설치 현황 자료를 근간으로 하였다.

2017년에 조사된 『2017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는 문헌정보학과가 학부과정에서 폐과(예정)된 대학은 5곳(2년제 3개교, 4년제 2개교)이며, 교육대학원에서 폐지된 학교는 10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곽동철(2011)의 연구에서는 2년제인 송곡대에 2009년에 문헌정보학과가 창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송곡대 문헌정보학과는 2011년에 폐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올해부터 학과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2020년에 4년제인 경일대와 2년제인 동원대 2곳에서 문헌정보학과가 폐지된 것으로 규명되었다.

기타사항으로 2010년에 인천전문대는 2년제는 폐지되고 4년제인 인천대로 합병되었으며, 연세대는 1979년에 폐지되었던 교육대학원이 2003년에 재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4년제인 강남대의 경우 2017년 ICT건설복지융합대학의 산업데이터사이언스학부 안에 데이터

사이언스전공으로 학제 개편되어 전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이 소속되어 있으나 사서 자격증 취득과는 무관한 학과로서 문헌정보학과는 폐지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2020년 2월 기준으로 폐과현황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과가 폐과된 대학(원)은 총18곳으로서 세부적으로 학부과정은 2년제가 5곳(27.8%)이며, 4년제가 3곳(16.7%)이고, 교육대학원이 10곳(55.6%)인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3〉 참조).

시기별로 살펴보면, 학부과정은 2004년에 폐과된 계명문화대학을 시초로 이후 2005년 동부산대학, 2010년 인천전문대학, 2011년 송곡대, 2017년 강남대, 2018년 나사렛대, 2020년에는 올해부터 학과 운영이 되지 않음으로써 경일대와 동원대에서 문헌정보학과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교육대학원은 1999년에 폐과된 숙명여대를 시작으로 이후 2000년 이화여대, 2007년 중부대와 한양대, 2010년 대구가톨릭대, 2011년 대구대, 2012년 성균관대, 2014년 청주대, 2016년 계명대, 2018년 동의대에서 사서교육전공이 폐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기별 분석을 종합한 결과가 주목된다. 즉, 최근 2017년 4년제인 강남대에서 학부과정 문헌정보학과가 폐과된 이후로, 2018년에는 동의대

〈표 3〉 문헌정보학과 폐과현황

구분	지역	대학교(원)명	창설연도	폐과년도
대학원	서울특별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2012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2	1999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2000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80	2007
	대구광역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2016
	부산광역시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2018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2010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2011
	충청남도 금산시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2007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2014
소계		10		
학부 (4년제)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학교	1978	2017
	경상북도 경산시	경일대학교	2010	2020
	충청남도 천안시	나사렛대학교	2007	2018
소계		3		
학부 (2년제)	대구광역시	계명문화대학교	1979	2004
	부산광역시	동부산대학교	1974	2005
	인천광역시	인천전문대학교	1981	2010
	강원도 춘천시	송곡대학교	2009	2011
	경기도 광주시	동원대학교	1997	2020
소계		5		
총계		18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과 4년제인 나사렛대에서 학부과정 문헌정보학과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올해에는 4년제인 경일대와 2년제인 동원대 2곳에서 학부과정 문헌정보학과가 폐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령인구의 절벽으로 인한 학과 폐과의 위기가 한국의 문헌정보학계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음을 인식할 수 있는 증거로 보인다.

또한 지역별로 파악하면, 학부과정은 수도권인 경기도에 소재한 4년제와 2년제 각각 1개교씩 총2개교에서 문헌정보학과가 폐과되었으며, 지방인 경상북도 경산시(4년제), 대구광역시(2년제), 부산광역시(2년제), 인천광역시(2년제), 강원도 춘천시(2년제), 충청남도 천안시(4년제)에 위치한 대학들에서 각각 1곳씩 문헌정보학과가 폐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문헌정보학과가 폐지된 곳은 경기도로서 경기도 안에서도 같은 동부권(광주시, 용인시)에 소재한 대학들에서 문헌정보학과가 폐지된 점이 주목된다.

이외에 교육대학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4곳의 대학들에서 사서교육전공이 폐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방인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2곳의 학교들에서 사서교육전공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금산시,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대학들에서 각각 1곳씩 사서교육전공이 폐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시사점

폐과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교육대학원은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10곳이 폐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2018년 2월 21일 개정된『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초・중・고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의 의무배치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8년 8월 21일부터 그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써 실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독서교육의 강화라는 사명을 제시하고 2019년부터 경기도 내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고시하였다. 즉,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 734곳(2018년 4월 기준)에 모두 기간제 사서교사를 배치하기로 하고 약296억 원의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사서교사 자격증을 갖춘 인력풀이 부족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2019.03.21).

그러므로 앞으로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사서교육전공 교육대학원 진학 관련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향후 사서교육전공 교육대학원의 (재)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질적으로 연세대는 1979년에 폐지되었던 교육대학원을 2003년에 재설치한 전례가 있다.

둘째, 2011년에 수행되었던 곽동철의 연구에서는 학부과정은 지방에 위치한 2년제 대학 2개교에서만이 문헌정보학과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2017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및 2020년 2월 기준으로 재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지역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서도 문헌정보학과가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2년제가 아닌 4년제에서도 문헌정보학과가 폐과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앞으로는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이라고 해서 폐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4년제 대학 역시 학과가 폐지될

수 있다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2017년 이후로 총5곳(동의대 교육대학원, 강남대・경일대・나사렛대・동원대 학부과정)의 대학원 및 학부과정이 폐과되었으며, 특히 이 중 2020년 올해에 2곳(경일대 및 동원대 학부과정)의 문헌정보학과가 폐지된 점이 주목된다. 또한 근래에 폐과된 대학들에서 문헌정보학과가 폐지된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신입생 모집이 미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학과와 관련하여 다른 문제점이 없더라도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면 학과가 폐지될 수 있다는 사실 및 나아가 학부과정이 폐과된다면 대학원도 자동적으로 함께 폐지된다는 점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즉, 학과 교수가 학교에서 보직을 하느냐의 여부와 우수학과 선정 및 교수의 뛰어난 연구업적 등과는 무관하게 신입생 충원이 안 된다면 그 학과는 폐과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내의 문헌정보학과들은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 및 대학구조개편으로 인한 폐과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앞으로 폐과의 원인은 신입생 충원 여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1.3 입학모집 경향과 입학 정원수 및 전임교원수 현황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2・4년제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36개 학교별 입학모집 트렌드와 입학 정원수 및 전임교원수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입학모집 트렌드는 각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 입학모집 정원내 전형자료를 기초로 하여 조사하였으며, 입학 정원수와 전임교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국가교육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 입학모집 경향

입학모집 추세로서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국의 36개의 대학 중 8곳(22.2%)은 2020년 정원내 입학전형 시에 학과제가 아닌 학부・계열제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에서만 학부・계열제로 모집하고 있는 8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최소 3개에서 최대 23개의 전공 및 학과를 통합하여 모집을 하고 입학 후에 전공을 결정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과제가 아닌 학부・계열제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8곳 중 5곳은 수시 및 정시전형 모두에서 학부・계열제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에 3곳은 수시전형에서는 학과제를 추진하고 정시전형에서는 학부・계열제를 실시함으로써 입학모집 시에 학과제와 학부・계열제를 함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학생들의 학과 선택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입학전형 시에 학부・계열제를 도입하는 측면도 있지만, 점차 우리나라에서 학령인구의 절벽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비인기학과의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서 입학전형 시에 학부・계열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년제의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학과제를 도입하여 입학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인을 위한 산업체반을 운영하는 전문대의 특성상 야간반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전문대 총4곳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2곳(50%)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부산여대 1곳(25.0%)은 주간반은 없이 야간반만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전문대 총4곳 중에서 2년제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는 3곳(75.0%)이며, 나머지 1곳(25.0%) 창원문성대는 3년제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 참조).

(2) 입학 정원수 및 전임교원수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국가교육통계센터[2]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의 연도별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입학 정원수 및 전임교원수 현황(2, 4년제 포함)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파악하기 이전에 먼저 2013년부터 2040년까지 한국사회에서의 전체적인 학령인구의 변화와 지역별 학령인구의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① 한국사회에서의 전체적인 학령인구의 변화

먼저 통계청에서 조사한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반상진 외(2013)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데이터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13년과 비교했을 때 2030년에는 유소년(0-14세)은 79.5만명, 고등학생은 63.8만명, 대학생 인구는 101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유소년 인구는 2040년에는 2013년과 대비하여 78% 수준일 것이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령인구는 65% 내외까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표 5〉, 〈그림 1〉 참조).

② 지역별 학령인구의 전망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7-2047년」에서는 향후 지역별 학령인구(6~21세)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6~21세의 학령인구는 2017년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각각 45.9%(-97만명), 43.8%(-44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또한 2017년 대비 2047년 학령인구(6~21세)는 세종특별자치시만 85.6%(5만명) 증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16.0%)와 경기도(-25.9%)를 제외한 14개 시도는 모두 3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9).

앞으로 통계청에서 2047년까지 타지역에 비해서 6~21세의 학령인구가 더욱 급감할 것으로 전망한 지역은 영남권과 호남권이며, 앞에서 본 연구의 문헌정보학과 설치현황(2020.02.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서 이 지역에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총12개교(영남권 8개교, 호남권 4개교)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2017년 대비 2047년에 학령인구(6~21세)가 846만명에서 524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며,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학령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수도 감안한다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절벽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6〉 참조).

2) 국가교육통계센터. 〈https://kess.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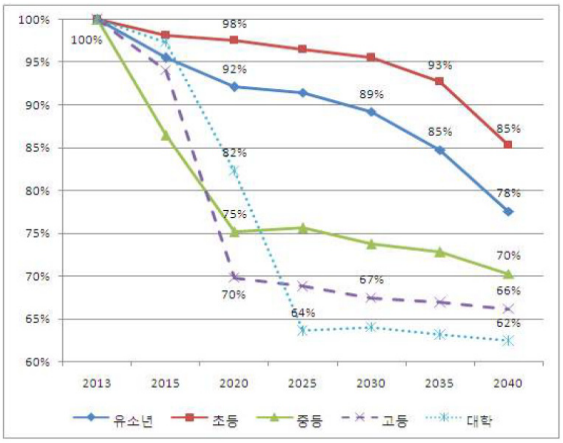
〈표 4〉 학교별 입학모집 경향

구분	대학교명	입학모집 경향	
		학과제	학부·계열제
4년제	건국대학교	수시 및 정시	
	경기대학교	수시 및 정시	
	경북대학교	수시 및 정시	
	경성대학교	수시 및 정시	
	계명대학교	수시 및 정시	
	공주대학교	수시 및 정시	
	광주대학교	수시 및 정시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및 정시	
	대구대학교	수시 및 정시	
	대진대학교	수시 및 정시	
	덕성여자대학교		수시 및 정시(글로벌융합대학 23개 학과)
	동덕여자대학교	수시 및 정시	
	동의대학교	수시 및 정시	
	명지대학교	수시	정시(인문학부 4개 학과)
	부산대학교	수시 및 정시	
	상명대학교	수시 및 정시	
	서울여자대학교	수시 및 정시	
	성균관대학교		수시 및 정시(인문과학계열 10개 학과)
	숙명여자대학교	수시 및 정시	
	신라대학교	수시 및 정시	
	연세대학교	수시 및 정시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정시(인문계열 17개 학과 및 학부)
	인천대학교	수시 및 정시	
	전남대학교	수시 및 정시	
	전북대학교	수시 및 정시	
	전주대학교	수시 및 정시	
	중부대학교		수시 및 정시(보건복지학부 3개 전공)
	중앙대학교	수시	정시(인문계열 사회과학대학 8개 학과 및 학부)
	청주대학교		수시 및 정시(인문학부 3개 전공)
	충남대학교	수시 및 정시	
	한남대학교	수시 및 정시	
	한성대학교		수시 및 정시(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8개 트랙)
소계	32		
2년제	대림대학교	수시 및 정시(주간 2년제)	
	부산여자대학교	수시 및 정시(야간 2년제)	
	숭의여자대학교	수시 및 정시(주·야간 2년제)	
	창원문성대학교	수시 및 정시(주간 3년제)	
소계	4		
총계	36		

〈표 5〉 학령인구 변화

(단위: 천명)

연도	유소년 인구	학령인구				
		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2013	7,370	9,363	2,788	1,808	1,962	2,805
2015	7,040	8,874	2,736	1,563	1,846	2,730
2020	6,788	7,757	2,719	1,359	1,370	2,308
2025	6,739	7,192	2,691	1,367	1,350	1,784
2030	6,575	7,116	2,663	1,333	1,324	1,796
2035	6,247	6,985	2,585	1,316	1,313	1,771
2040	5,718	6,698	2,378	1,271	1,298	1,751
2045	5,171	6,200	2,095	1,164	1,224	1,716
2050	4,783	5,618	1,912	1,019	1,092	1,596
2055	4,594	5,146	1,840	936	966	1,404
2060	4,473	4,884	1,805	906	910	1,264



〈그림 1〉 학령인구 감소추이

출처: 반상진 외. 2013.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 대책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30(4): 192.

〈표 6〉 2017~2047년 지역별 학령인구(6-21세) 예측

지역	학령인구(6-21세) 전체(만명)						
	2017년	2025년	2035년	2045년	2047년	2017년 대비 2047년	
						증감	증감률(%)
전국	846	689	548	529	524	-322	-38.0
서울	143	105	80	79	78	-65	-45.2
부산	52	39	30	27	27	-25	-47.9
대구	42	32	24	22	22	-25	-47.9
인천	48	40	32	31	31	-17	-35.2
광주	29	22	16	15	15	-14	-47.6
대전	29	20	16	15	15	-14	-47.7
울산	20	16	12	11	11	-9	-45.3
세종	5	9	9	10	10	5	85.7
경기	220	198	165	164	163	-57	-25.9
강원	25	19	15	14	14	-11	-43.9
충북	28	22	18	17	17	-11	-38.1
충남	37	31	26	25	25	-12	-31.7
전북	32	24	18	17	17	-15	-48.0
전남	28	23	17	15	15	-13	-46.4
경북	42	33	25	22	22	-20	-46.8
경남	56	47	36	32	32	-24	-42.6
제주	11	11	10	10	10	-2	-16.0
수도권	412	342	276	274	273	-139	-33.7
중부권	124	100	84	82	81	-42	-34.2
호남권	100	79	61	57	56	-44	-43.8
영남권	210	167	127	115	114	-97	-45.9

출처: 통계청. 2019.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17~2047년

③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입학 정원수 및 전임교원수 현황

보다 실질적인 분석으로서 학령인구의 급감과 관련하여 문헌정보학과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입학 정원수(2, 4년제 포함)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13년과 대비하여 2019년에 입학 정원수는 1,427명에서 1,030명으로 38.5%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임교원수(2, 4년제 포함)도 178명에서 157명으로 13.4% 감소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즉, 한국사회에서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문헌정보학과에서도 입학 정원수 및 전임교원수가 실제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임교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국가교육통계센터에서 제시한 기준으로서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 수치이다(〈표 7〉 참조).

5년 동안의 연도별 증감추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입학 정원수(2, 4년제 포함)는 2014년에는 2013년과 비교했을 때 1.0% 감소했고, 2015년에는 2014년에 비해서 3.1% 감소했으며, 2016년에는 2015년과 대비하여 1.4% 감소했다. 또한 2017년에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14.1%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

〈표 7〉 연도별 입학 정원수 및 전임교원수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입학 정원수	전임교원수
2013년	4년제	1,117	159
	2년제	310	19
계		1,427	178
2014년	4년제	1,119	158
	2년제	294	18
계		1,413	176
2015년	4년제	1,107	154
	2년제	264	19
계		1,371	173
2016년	4년제	1,088	158
	2년제	264	16
계		1,352	174
2017년	4년제	921	147
	2년제	264	16
계		1,185	163
2018년	4년제	831	140
	2년제	264	14
계		1,095	154
2019년	4년제	819	144
	2년제	211	13
계		1,030	157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연구자 재구성

서 8.2% 감소했고, 2019년에는 2018년과 대비하여 6.3% 감소했다. 전임교원수(2, 4년제 포함)는 2014년에는 2013년과 비교했을 때 1.1% 감소했고, 2015년에는 2014년에 비해서 1.7% 감소했으며, 2016년에는 2015년과 대비하여 0.6% 증가했다. 또한 2017년에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6.7%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서 5.8% 감소했고, 2019년에는 2018년과 대비하여 1.9%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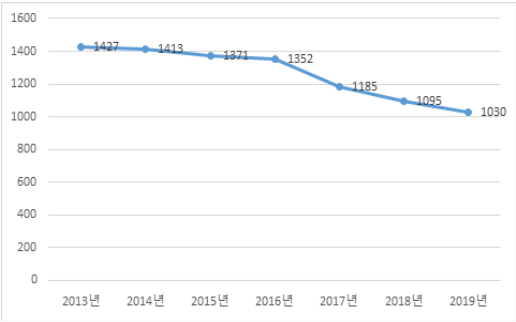
이 가운데 신입생 정원수(2, 4년제 포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해마다 계속 감소한 반면에 전임교원수(2, 4년제 포함)는 2016년과 2019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0.6%와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요소로 전임교원 확보율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다소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과거에는 전임교원인 경우에 모두 정년이 보장되었지만, 최근에는 전임교원을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하여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른 대학 측의 대응으로 판단된다. 즉, 근래에 국내 문헌정보학과 전임교원수가 전년 대비 조금 늘어났을지라도 여기에는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대학 측의 대응방안으로서 비정년 전임교원의 채용이라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림 2〉, 〈그림 3〉 참조).

(3) 시사점

입학모집 트렌드와 입학 정원수 및 전임교원수의 현황(2, 4년제 포함)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보다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 시에 학부·계열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학부·계열제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2학년 때 앞으로 공부할 학과를 선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과의 전체 적정 정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중심 교육, 취업률 향상 등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타 학과 보다 문헌정보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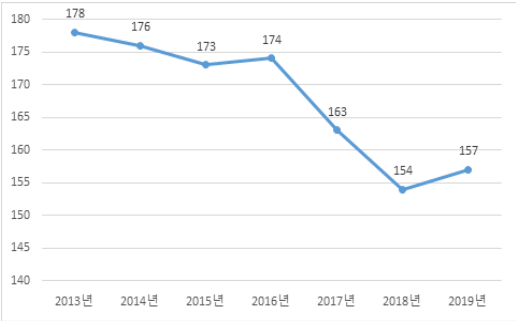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2〉 연도별 입학 정원수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연구자 재구성

(단위: 명)



〈그림 3〉 연도별 전임교원수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연구자 재구성

둘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입학 정원수(2, 4년제 포함)는 해마다 감소하였으며, 6년 동안 1,427명에서 1,030명으로 38.5%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향후 대학입학예정자의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의 입학 정원수의 감소는 불가피한 사항이 될 것이다. 그러나 4년제의 경우에는 전체 재학생 수가 2년제 보다 많기 때문에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입학 정원수를 줄여도 학과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2년제의 경우에는 입학 정원수를 줄이면 학과 운영이 어려워져 폐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히 2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문헌정보학과의 폐과를 막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전임교원수(2, 4년제 포함)는 178명에서 157명으로 13.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학과의 입학정원을 점차 줄여나감으로써 전임교원수 역시 감축한 결과로 보이며, 앞으로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해 전임교원을 증원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된다.

4.2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학과명 분석

(1) 분석결과

전국에 설치된 2・4년제 36개의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학과명을 분석하였으며,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명도 조사하였다. 첫째, 4년제의 경우로서 32곳 중에서 소속 단과대학이 사회과학대학이 13곳(40.6%), 문과대학 및 인문대학이 7곳(21.9%), 인문사회대학 및 인문사회과학대학이 5곳(15.6%)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공공인재대학, 사범대학이 각각 1곳(3.1%)씩으로 확인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 양성을 부각시키는 단과대학명으로서 인문사회융합대학, 글로벌융합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휴먼서비스대학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1곳(3.1%)씩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타로서 소속 단과대학 구분이 없는 학교 1곳(3.1%)이 존재하였다. 또한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4년제 대학 32곳 중에서 6곳(18.8%)으로서 구체적으로 학부명은 공공인재학부, 보건복지학부, 인문학부, 인문콘텐츠학부,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과명은 문헌정보학과(문헌정보학전공)인 경우가 전체 4년제 대학 32곳 중에서 29곳(90.6%)이며, 기타로서 도서관학과, 도서관정보문화트랙, 문헌정보교육과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1곳(3.1%)씩으로 집계되었다.

둘째, 2년제의 경우에는 총4곳이 모두 학부・계열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계열 및 학부명은 인문사회계열과 보건복지학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과명은 문헌정보과인 경우가 전체 2년제 대학 4곳 중에서 3곳(75.0%)이고, 나머지 1곳(25.0%)은 도서관정보과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8〉 참조).

(2) 시사점

학교별 학과명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4년제 대학의 경우에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명이 인문사회융합대학, 글로벌융합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크

〈표 8〉 학교별 학과명 현황

구분	대학교명	단과대명	학부명	학과명
4년제	건국대학교	● 인문사회융합대학	● 공공인재학부	● 문헌정보학과
	경기대학교	● 휴먼서비스대학(2020년) ● 인문대학(2021년 개정예정)		● 문헌정보학과
	경북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경성대학교	● 문과대학		● 문헌정보학과
	계명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공주대학교	● 사범대학		● 문헌정보교육과
	광주대학교	● 인문사회대학		● 문헌정보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도서관학과
	대구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대진대학교	● 공공인재대학		● 문헌정보학과
	덕성여자대학교	● 글로벌융합대학-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동덕여자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동의대학교	● 인문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명지대학교	● 인문대학	● 인문학부	● 문헌정보학과
	부산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상명대학교	● 인문사회과학대학	● 인문콘텐츠학부	● 문헌정보학과
	서울여자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성균관대학교	● 문과대학		● 문헌정보학과
	숙명여자대학교	● 문과대학		● 문헌정보학과
	신라대학교	● 인문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연세대학교	● 문과대학		● 문헌정보학과
	이화여자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인천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전남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전북대학교	● 인문대학		● 문헌정보학과
	전주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중부대학교		● 보건복지학부	● 문헌정보학전공
	중앙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청주대학교	● 인문사회과학대학	● 인문학부	● 문헌정보학전공
	충남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 문헌정보학과
	한남대학교	● 문과대학		● 문헌정보학과
	한성대학교	●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 도서관정보문화트랙
소계	32			
2년제	대림대학교		● 인문사회계열	● 도서관정보과(2020년 개정) ● 도서관미디어정보과(2021년 개정예정)
	부산여자대학교		● 보건복지학부	● 문헌정보과
	숭의여자대학교		● 인문사회계열	● 문헌정보과
	창원문성대학교		● 인문사회계열	● 문헌정보과(교육서비스)
소계	4			
총계	36			

리에이티브인문학부인 곳들이 주목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미래사회에 중시되는 창의성과 인문학 및 융합교육을 단과대학 및 학부명에 도입한 사례로 보인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 및 학부명이 이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둘째, 총3곳의 대학의 경우(4년제 2곳, 2년제 1곳)에는 학과명이 문헌정보학과가 아닌 도서관학과, 도서관정보과, 도서관정보문화트랙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학령인구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들의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사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가 문헌정보학과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에 학과명에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학령인구 및 일반인들 측면에서 학과의 주된 취업분야를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과거에 도입된 학과명으로서 문헌정보학과 아동보육학이 융합된 '아동문헌정보학과(4년제: 경일대, 2년제: 대림대, 부산여자대)'와 문헌정보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이 융합된 '문헌정보데이터관리학과(2년제: 동원대)'는 2020년 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동원대 '문헌정보데이터관리학과'와 경일대 '아동문헌정보학과'는 2020년에 폐과되었으며, 대림대와 부산여자대 '아동문헌정보학과'는 학과명이 2020년부터 '도서관정보과'와 '문헌정보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넷째, 향후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학과명을 변경할 예정인 대학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림대의 경우, 2020년에 변경한 '도서관정보과'를 내년 2021년부터는 '도서관미디어정보과'로 학과명을 다시 개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서관미디어정보과'는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어 도서관 사서(Librarian) 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관리자(Media Specialist)와 정보 및 데이터 전문가(Information Scientist)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학과명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및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시대변화 대응 측면에서 발생한 결과로 사료된다.

5.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 모색

범지구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사회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함으로써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학과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학문의 정체성 및 미래 발전 방향을 탐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의 개관 및 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문헌정보학과의 정체성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크게 5가지 측면으로 구분하

여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 학문 정체성 차원에서 융합교육 필요

한국의 문헌정보학과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학문 정체성 차원에서 융합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현존하는 기술들 간의 융・복합을 토대로 발생한 혁신을 뜻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계에서도 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교육을 중시하게 되었다. 현황 분석결과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실제적으로 이미 국내의 문헌정보학과에서 학과 소속대학 및 학부명을 인문사회융합대학 또는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등으로 변경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타 학문 분야에서 수행된 박정민, 조현철(2003)의 선행연구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직종인 BT, CT, IT산업 등과의 접목을 통한 교육과정 및 교육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앞으로 한국의 문헌정보학과는 미래 사회변화 및 대학 입학생 수의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문 정체성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직종의 인재양성과 연계된 융합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실제적으로 현재 전국의 문헌정보학과들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빅데이터(Big data) 및 데이터사이언스(Data Science)와의 접목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강지혜(2016)의 연구에서 미국의 69개 iSchool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데이터 사이언스와 건강, 경영, 기술, 바이오, 지리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Lyon and Brenner(2015)는 iSchool은 향후 학생들이 대학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서 산학 간의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실무 현장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능력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문헌정보학과들마다 데이터사이언스와의 융합교육을 운영할 시에는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하며, 산학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5.2 법・국가차원에서 문헌정보학과 진흥 및 사서 취업 안정성 보장

국내의 문헌정보학과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법・국가차원에서 도서관・문헌정보학과의 진흥 및 사서 취업의 기회 확대와 안정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도서관은 국가 지식경쟁력의 보고(寶庫)이며, 특히 창의력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에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창작문화 정착을 강화시켜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 문재인 대통령은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실질적으로 2018년 2월 21일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초・중・고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명시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의무배치를 규정하였으며,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국가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서 인력의 확대를 제안하며,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의무배치와 같이 타 관종의 도서관 관련해서도 법・국가차원에서의 사서 취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법・국가차원에서 문헌정보학과의 진흥 및 사서 취업의 기회 확대와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대학입학예정자 및 자율전공제・학부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학과의 입학정원수를 충원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가운데 문헌정보학과의 폐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5.3 협회차원에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

한국의 문헌정보학과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협회차원에서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관련 사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도서관・문헌정보학 관련 대표 협회인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하여 여러 관종의 협회[3]들은 대학입학예정자인 수험생과 외국인유학생 및 일반인들이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3가지를 제안하며,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의 독서문화 형성 및 도서관 이용증진을 위한 홍보 및 관련 사업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수험생 및 일반인들의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 예로서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종별 도서관 사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사서를 직업으로 갖고자 하는 학생들, 즉 대학 입학 시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잠재적 수요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한국학 주제전문사서로서 한국인 사서를 채용하는 경우가 일반화된 국외사례처럼 최근 한국대학에 진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헌정보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내 도서관 현장에서 특정학 주제전문사서제의 도입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다문화 주제전문사서로서 한국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베트남 유학생을 채용한다거나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요즘 한국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유학생층인 중국학생들을 겨냥하여 중국학 주제전문사서를 한국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중국 유학생을 채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고자하는 유학생층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신입생 충원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도서관・문헌정보학 관련 협회란,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한국작은도서관협회,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등을 말한다.

5.4 대학차원에서 문헌정보학과 지원 및 홍보 확대

국내의 문헌정보학과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대학차원에서 문헌정보학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구혜경, 전달영, 공면규(2018)의 연구에서도 대학의 이미지 및 학과 홍보는 대학지원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하지만 문화 및 뷰티산업의 확대로 인해 요즘 초・중・고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연예 관련 학과, 뷰티 관련 학과, 디자인 관련 학과, 게임 관련 학과 등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노영희(2015)의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듯이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대학진학예정자인 학생들의 인지도 및 선호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로써 향후 대학차원에서 문헌정보학과가 폐과되지 않도록 보다 능동적으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학과장의 임무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대학 소재 지역문화축제 개최 시에 재학생들의 봉사참여를 통한 대학 및 학과홍보의 강화, 대학 입시박람회 때 문헌정보학과 홍보 브로셔의 배부, 지역교육청과 연계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학과체험 및 진로멘토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을 제안한다. 특히 대학학과체험 프로그램의 강화는 학과에 지원하는 잠재적 수요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열어 등(2015)의 연구에서도 실제적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에서 진로체험 참여 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신입생 모집에 있어 홍보 측면에서 학과 홈페이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만약 대학측의 홈페이지 담당자가 학과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면, 디자인과 콘텐츠 등 학과 홈페이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5.5 학과차원에서 학생중심 교육 강화 및 취업률 향상 도모

한국의 문헌정보학과의 미래 발전 방향으로 학과차원에서 학생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김태성(2017)의 연구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학교 공동체는 대학의 주체이며 능동적 학습자인 학생을 조력하는 멘토이자 코치로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즉 학생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학과차원에서 교육과정 및 학과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학생중심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이 1학년 때 다양한 전공과 각 학과의 분위기를 경험한 후 2학년 때 본인의 전공을 결정하게 되는 자율전공제 및 학부제를 도입하고 있는 학과의 경우 더욱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인간다움(감성)을 갖춘 인재양성이 중요해지기에 멘토(상담) 및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을 통한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성교육에 비중을 둘 필

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규정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학교별 학과명 현황 조사결과에서도 실제적으로 문헌정보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명에 인문사회융합대학, 글로벌융합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취업률 향상은 대학 지원자들의 학과 지원의도 및 학과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수동적으로 학생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보다 능동적으로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 개관 및 현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문헌정보학과의 정체성 및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2・4년제를 포함하여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총36개로서 구체적으로 4년제는 32개교(88.9%)이며, 2년제는 4개교(11.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헌정보학과가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로서 33.3%에 해당하는 12개교(4년제 11개교, 2년제 1개교)에서 문헌정보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가 13.9%로서 5개교(4년제 4개교, 2년제 1개교), 경기도가 8.3%로서 3개교(4년제 2개교, 2년제 1개교)에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둘째, 한국의 문헌정보학과의 폐과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문헌정보학과가 폐과된 대학(원)은 총18개교로서 세부적으로 학부과정은 2년제가 5개교(27.8%)이며, 4년제가 3개교(16.7%)이고, 교육대학원이 10개교(55.6%)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학부과정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2년제 1곳과 경기도에 소재한 2년제 1곳과 4년제 1곳 총3개교에서 문헌정보학과가 폐과되었다. 지방의 경우에는 총5개교로서 대구광역시(2년제), 부산광역시(2년제), 강원도 춘천시(2년제), 경상북도 경산시(4년제), 충청남도 천안시(4년제)에 위치한 대학들에서 각각 1곳씩 문헌정보학과가 폐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원의 경우 서울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충청남도 금산시,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교육대학원 10곳이 폐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의 절벽 및 대학구조개편으로 인한 위기는 이미 국내 문헌정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2년제 및 4년제뿐만 아니라 지방 및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4년 뒤인 2024년에는 대학입학가능자원이 15만 2천명이 줄어듬으로써 대학 신입생 확보 전쟁이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전국적으로 2017년 대비 2047년에 학령인구(6~21세)가 846

만명에서 524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며,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학령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 수도 감안한다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절벽으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국의 문헌정보학과의 학교별 입학모집 경향과 입학 정원수 및 전임교원수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36곳 중에서 22.2%로서 4년제 8곳은 2020년 입학전형 시에 학과제가 아닌 학부・계열제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연도별 한국의 문헌정보학과의 입학 정원수 및 전임교원수도 2013년과 대비하여 2019년에 입학정원수는 38.5% 감소하였으며, 전임교원수는 1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써 학과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가 낮은 비인기학과의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입학전형 시에 학부・계열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입학 정원수 및 전임교원수가 감소하고 있는 각 문헌정보학과들에서도 폐과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고 이를 막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넷째, 국내 문헌정보학과 학교별 단과대학・학부・학과명 현황을 파악한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인문사회융합대학, 글로벌융합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와 같이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명이 변화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학과명에 있어서 향후 2021년부터 학과명을 변경할 예정인 대학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정예정인 학과명은 '도서관미디어정보과'이며, 이는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어 도서관 사서(Librarian) 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관리자(Media Specialist)와 정보 및 데이터 전문가(Information Scientist)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과이다.

이러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단과대학・학부・학과명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및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시대변화 대응 측면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다섯째,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 방향을 첫째, 학문 정체성 차원에서 융합교육 필요, 둘째, 법・국가차원에서 문헌정보학과 진흥 및 사서 취업 안정성 보장, 셋째, 협회차원에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 넷째, 대학차원에서 문헌정보학과 지원 및 홍보 확대, 다섯째, 학과차원에서 학생중심 교육 강화 및 취업률 향상 도모로서 5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및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현황 및 타 학과의 사례와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에 앞으로 국외 동향의 파악 및 설문조사 등을 수행한 보다 심화된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인 기여도 측면에서 전국의 문헌정보학과들이 미래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사회적인 기여도

측면에서 현재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문헌정보학과의 폐과를 막음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도서관을 유지・활성화시켜 한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강지혜. 2016. 문헌정보학과의 데이터 사이언스 커리큘럼 개발 실태와 방향성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343-363.

[2] 고영구, 조택희. 2018. 지역의 관점에서 본 대학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40: 79-98.

[3] 곽동철. 2011.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69-83.

[4] 국가교육통계센터. [online] [citied 2020. 2. 28.] 〈http://kess.kedi.re.kr〉

[5] 권혁빈, 박준석. 2017. 경호학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발전 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0): 143-172.

[6] 김태성.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해설 - 대학 및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8(3): 333-353.

[7] 노영희. 2015. 고등학교 학생의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5-30.

[8] 노영희. 2017. 『2017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서울: 조은글터.

[9] 박옥남. 2013. 문헌정보학 정체성에 대한 연구: 비평적 담론분석 기반 미국 문헌정보학 강령분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0(3): 89-109.

[10] 박정민, 조현철. 2003. 입학생 감소에 따른 우리 대학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경북전문대학 논문집』, 22: 245-270.

[11] 박철인, 박수진, 권순무, 김원기, 장기환. 2018.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대학 수업 연한 다양화에 대한 인식조사 - 보건계열학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4): 186-196.

[12] 반상진 외. 2013.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 대책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0(4): 189-211.

[13] 어디가 [online] [cited 2018. 3. 7.] 〈http://www.adiga.kr〉

[14]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 계획 난항' [online] [cited 2019. 3. 21.]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1113800061?input=1179m〉

[15] 연합뉴스. '내년 대학정원〉대입자원...5년 뒤면 대학 갈 학생 40만명 밑으로' [online] [cited 2020. 1. 10.]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9135400004?input=1195m〉

[16] 이제환. 2018. 한국 문헌정보학은 건강한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1-32.
[17] 이주욱, 한동수, 윤대현. 2016. 대학의 위기와 체육계열 학과의 실천적 과제. 『디지털융복합연구』, 14(1): 427-436.
[18] 임경순.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문 교육. 『한중인문학연구』, 제58집: 1-20.
[19] 전열어 등. 2015. 간호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경로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2): 269-282.
[20] 통계청 보도자료. 2019.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17-2047년. [online] [cited 2020. 3. 4.] 〈http://kostat.go.kr〉
[21] 한국경제. '지방 사립대 38% 정원도 못 채운다' [online] [cited 2020. 3. 12.]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12005661〉
[22] Lyon, L. and A. Brenner. 2015. "Bridging the Data Talent Gap: Positioning the Ischool as an Agent for 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Digital Curation*, 10(1): 111-12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Kang, Jihei. 2016.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Data Science Curriculum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its Direc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3): 343-363.
[2] Ko, Youngkoo. 2018.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University Polices from the Viewpoint of Region." *Journal of the Korea Regional Economics*, 40: 79-98.
[3] Kwack, Dongchul. 2011. "A Study on the Essence and Direction of th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69-83.
[4]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online] [citied 2020. 2. 28.] 〈http://kess.kedi.re.kr〉
[5] Kwon, Hyuckbin and Park, Junseok. 2017. "Development Plan for the Identity and Future of Security Science." *Journal of Korean Security Science*, (50): 143-172.
[6] Kim, Taesung. 2017. "A Review of the Report on Future Educ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Focused on Post-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8(3): 333-353.
[7] Noh, Younghee. 2015.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the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4): 5-30.
[8] Noh, Younghee. 2017. *2017 The Curriculum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Joheun Geulteo.

[9] Park, Oknam. 2013. "Revisit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Mission Statem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hool in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3): 89-109.

[10] Park, Jungmin and Cho, Hyunchul. 2003. "A Study on Strategy according to Shrinking Number of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ational College*, 22: 245-270.

[11] Park, Cheolin et al. 2018. "A Cognitive Survey on the Diversification of Class Year from Junior Colleges by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 Focused on Health Sciences Departm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19(4): 186-196.

[12] Ban, Sangjin et al. 2013. "University Enrollment Quota Adjustment and Restructuring according to Decline in School Age Popul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20(4): 189-211.

[13] ADIGA [online] [cited 2018. 3. 7.] 〈http://www.adiga.kr〉

[14] Yonhap News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Difficulties of Teacher-Librarian Placement in every School' [online] [cited 2019. 3. 21.]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1113800061?input=1179m〉

[15] Yonhap News. 'After 5 years the number of student entering the university, under 400,000 person' [online] [cited 2020. 1. 10.]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9135400004?input=1195m〉

[16] Lee, Jaewhoan. 2018. "What is Wrong with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3): 1-32.

[17] Yi, Joowook and Han, Dongsoo, Yun, Daehyun. 2016. "Crisis at Universities and the Practical Issues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Related Developments."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4(1): 427-436.

[18] Lim, Kyungsoon. 2018.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tudies of Korean & Chinese Humanities*, 58: 1-20.

[19] Chun, Yeoleo et al. 2015. "Impact of Career Experience Programs for Nursing Science Department on the Images and Career Path of Nurse." *Journal of Le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12): 269-282.

[20] Statistics Korea. 2019. Prospective Population Estimates(SiDo Section): 2017-2047. [online] [cited 2020. 3. 4.] 〈http://kostat.go.kr〉

[21] The Korea Economic Daily. '38% of local private universities can't fill the admission quota' [online] [cited 2020. 3. 12.]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12005661〉